신인조화에 관한 연구

朱 賢 哲*

目 次

Ⅰ. 서론
Ⅱ. 신의 유형 및 특성
1. 신명
2. 신
3. 신장
4. 귀신
Ⅲ. 신과 인간의 관계
1. 공재적 관계
2. 음양적 관계
3. 대대적 관계
Ⅳ. 신인조화의 특성
1. 신관
2. 인간관
3. 신인조화의 실천방법
4. 신인조화의 완성
Ⅴ. 결론

Ⅰ. 서론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의 하나인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의 조화적(調化的) 관계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순진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인조화의 주된 논의(論議)의 대상은 당연히 신과 인간이 되며, 신인조화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신과 인간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야 비로서 참다운 신인조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그 특성, 신과 인간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독문학 박사

의 관계, 신관(神觀)과 인간관(人間觀), 신인조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특히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신관(神觀)의 내용은 대단히 방대하다. 그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신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보다는 『전경』에서 신과 직접적 관련을 보이는 용어를 중심으로 신격(神格)을 정의함으로써 신관을 정립해 보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파악된 신관을 토대로 하여 신인조화가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그 관계를 밝혀, 신인조화가 지니는 대표적 특징인 이상적 인간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Ⅱ. 신의 유형 및 특성

모든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신은 종교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체계에서 신관(神觀)은 그 중심사상이 된다. 어느 한 종교에 대한 신관을 논할 때, 유일신론(唯一神論), 다신론(多神論)[1], 범신론(汎神論) 등으로 구분하여 그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대순진리의 신관[2]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기존의 종교적 용어로는 정의를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서양에서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와의 차별화를 위해 만들어지고 개념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순진리에서 언급되는 신이 타종교에 비해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난 신관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적 방법으로, 먼저 『전경』

1) 다신론은 종교학상 동시에 다수의 신을 인정하는 신앙태도이다. 일신론과 대조되나 실제적 구분은 명백치 않다. 유태교·기독교·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는 거의 모두 다신론적이라 할 수 있다.

2)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은 상제(上帝)님이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 등으로도 불리운다. 이 글에서는 논문인 점을 감안하여 '상제'라고 호칭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상제관이라 하겠다. 또 특별한 설명없이 '신'이나 '신관'이라고 할 때는 협의적 의미에서의 신이나 신관을 의미한다.

에 나타난 신과 관련한 내용을 분류하고 그것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전경』에서 신과 관련된 용어는 아주 다양하다. 그것은 대략 신명(神明)·신(神, 협의적 의미)·신장(神將)·귀신(鬼神)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용어의 의미들은 각 종교의 교리체계에 따라 그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그 개념을 살펴본 후, 신적(神的) 존재의 성격을 정의하려고 한다.

1. 신명

『전경』에 나타난 대략적인 신명의 유형은 천지신명(天地神明), 대신명(大神明), 천지대신명(天地大神明), 지방신명(地方神明), 중천신명(中天神明), 도술신명(道術神明), 동학신명(東學神明), 조선신명(朝鮮神明), 서양신명(西洋神明), 청국만리장신명(淸國萬里長神明)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통해 볼 때 먼저 신명은 크게 일반신명과 대신명, 그리고 천지신명과 천지대신명으로 대별되는 대소(大小)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선신명·서양신명·지방신명·청국만리장신명 등과 같이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와 관련된 신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명의 유형을 종합해 볼 때, 신명이 특별한 장소와 관련된 것이면서도 천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범신론적이면서 다신론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신개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차후에 신명에 대해서는 신과 인간의 관련성과 신인조화의 장(章)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2. 신

『전경』을 살펴보면, 신명에 비해 신(神)의 용례는 범위의 차이로써, 신명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신은 기능적, 세부적, 구체적인 내용을 통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경』에 나타난 신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대략 척신(慽神), 호소신(呼笑神), 중천신(中天神), 황천신(黃天神), 선령신(先靈神), 유불선도통신

3) 辛一鎬, 「神明에 대한 小攷」, 『대순논집』, 대순진리회출판부, 1992, 19쪽

(儒佛仙道通神), 문명신(文明神), 보은신(報恩神), 역신(逆神), 황극신(皇極神), 총묘천지신(塚墓天地神), 기지천지신(基址天地神), 만사신(萬死神), 백복신(百伏神), 원신(元神), 서신(西神), 예고신(曳鼓神), 예팽신(曳彭神), 석란신(石蘭神)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러한 신들의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자료[4]를 기초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척신(慽神)은 원한을 지니고 있는 신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척신은 사람이나 사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複數)로 잠재할 수도 있는데 척신이 범하게 되면 사람이나 사물은 그 기능을 잃어 버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척신을 해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 다음으로 호소신(呼笑神)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호소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신이 천지공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지공사가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 호소신은 아마도 후천선경 건설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선령신(先靈神)은 각 족속 또는 각 성씨(姓氏)의 선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선령신은 그들이 지은 공덕에 의해 천상으로부터 자손을 얻어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자손을 척신의 무리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손을 둔 황천신(黃天神)과 그렇지 못한 중천신(中天神)이 있으며, 선령신은 직접 천상공정(天上公庭)에 참여하기도 한다.[6] 유불선도통신(儒佛仙道通神)은 유가(儒家), 불가(佛家), 도가(道家)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은 『전경』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도통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순진리에서의 도통은 유불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대순진리는 기존의 사상을 배척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수용한다는 사실이다.

---

4) 辛一鎬, 같은 글, 22-24쪽; 김탁, 『증산교학』, 미래향문화, 서울 1992, 63-88쪽을 주로 참조함

5) 『전경』, 행록 3장 16절, 4장 47절, 교운 1장 2절, 교법 2장 14절 참조

6) 『전경』, 공사 1장 29절, 교운 1장 33절, 교법 2장 14절, 2장 36절 참조

문명신(文明神)은 세계문화의 계발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의 신으로서 세계문화와 문명계발 모두를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며[7], 보은신(報恩神)은 말 그대로 은혜를 보답하는 기능을 지닌 신으로, 『전경』에 의하면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조공을 해온 연유로 중국의 보은신에 의해 조선은 소중화에서 대중화로 변모하게 된다.[8] 또한 역신(逆神)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으려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의 신명들을 말하는데, 대순진리에서는 역신의 해원을 통한 후천선경건설을 강조하고 있다.[9]

황극신(皇極神)은 신명세계에서 황극의 자리에 있는 신명으로, 정사(政事)와 관련이 있다. 황극(皇極)은 홍범(洪範)의 구주(九疇)에서 가장 중요한 치세(治世)의 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황(皇)은 '대(大)', 극(極)은 '중(中)'을 뜻하며, 대중지정(大中至正)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요순이래 왕상전(王相傳)의 대법(大法)이며, 제왕(帝王)의 위(位)를 나타내기도 한다. 역대의 제왕들이 죽은 다음 명명된 신격으로 볼 수 있으며, 비슷한 개념으로 천자신(天子神)이 있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로부터 군왕이었던 인물들이 신(神)이 된다고 믿어 이를 존앙했다는 기록이 있다.[10] 『전경』에서 황극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의 황극전을 중심으로 좌상과 우상을 좌우로 두고, 여덟 방위에 팔판(八判)을 각각 두며, 팔방을 둘러 싼 현(縣)에 현감과 그 아랫 자리에 현령을 두는 정사의 기구를 다스리는 신명인데, 그 황극전에 후비소(后妃所)가 있다. 이 황극신이 황극전에서 떠나면 이 세상은 정사가 어지러워져서 문란해지고 진멸하기에 이른다. 또한 황극신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천자국 또는 상등국의 건설과 관련한 신명으로 이해된다.[11]

원신(元神)은 첫째 대신(大神), 천신(天神)의 뜻이 있고, 둘째는 도가(道家)에서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말이다.[12] 그리고 빛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도 있다.[13] 또 한편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무후무양(無朽無攘)하는 진령으로

---

7) 『전경』, 예시 12절 참조
8) 『전경』, 공사 3장 18절 참조
9) 『전경』, 공사 3장 19절, 교법 3장 6절 참조
10) 村山智順, 『朝鮮の鬼神』, 조선총독부, 1929, 131쪽
11) 『전경』, 공사 3장 22절, 교운 2장 50절 참조
12) 『대한화사전』 1권, 985쪽
13) 神條. 得灝氣之門, 所以收其根, 如元神之舍, 所以收其光(『化書』) 『佩文韻府』 卷11上, 11眞

서, 천심(天心)은 원신이 주재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아울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14] 아마도 『전경』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화(化)한 상제님에 대한 개념으로서 구천상제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15]

지방신(地方神)은 각 영역에 머물러 그 영역이나 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지방은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안의 여러 지역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좁히면 일가(一家)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16] 만사신(萬死神)과 백복신(百伏神)은 신명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기 보다는 개념화한 신으로 선천(先天)에서 창생억조에 영향을 끼쳤던 모든 신명적 존재들과 후천(後天)에서 가용(可用)할 신명들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써 사망(死亡), 신생(新生)의 의미보다는 은신(隱身), 현신(現身)의 의미가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17] 만사신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매진하다가 죽어서 된 신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8] 또 아표신은 굶어 죽은 이의 신을 지칭한다.[19]

예고신(曳鼓神)·예팽신(曳彭神)·석란신(石蘭神)은 『전경』에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추론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曳)는 '길게 끌어당긴다', 팽(彭)은 '장수(長壽)'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는 요(堯)임금의 신하인 팽조(彭祖)가 무려 팔백세를 살았다는 기록에서 유추한 뜻이다. 팽(彭)의 또다른 의미로는 '북치는 소리의 방'이라는 의미도 있다. 예고신은 '북을 친다'는 의미에서 예고와 예팽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북을 친다는 의미에서 유추되는 것처럼 활기찬 생명력을 진동 고무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석란신(石蘭神)이 있는데, 석란은 시냇가에서 주로 자라는 향초(香草)의 이름이며, 석위(石韋)라고도 한다. 석위는 생명력이 강하며, 다생(多生)이고, 겨울철에도 말라죽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록(常綠)을 자랑하는 식물이다.[20]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의 신들은 모두 사람의 생명 즉 후천의 무병장

14) 楊逢時, 『中國正統 道教大辭典』, 逸群有限公司, 臺北 1985, 173쪽
15) 『전경』, 예시 3절 참조
16) 『전경』, 교운 1장 63절 참조
17) 『전경』, 교운 1장 50절 참조
18) 김탁, 앞의 책, 82쪽
19) 『전경』, 권지 1장 8절 참조
20) 『대한화사전』 8권, 300쪽

수와 관련성이 있는 신으로 추정된다. 총묘천지신(塚墓天地神)과 기지천지신(基址天地神)이 있는데, 총묘(塚墓)는 '묘소' 또는 '무덤'을 의미하고, 기지(基址)는 '기초(基礎)'와 '토대(土臺)', '기지(基趾)'라는 뜻을 지닌다. 이 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격을 입증할 문헌적 근거가 없지만, 이것을 추론하면 죽은 자의 신격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생각되며, 천지를 지탱해 가는 신격의 총칭으로 생각된다.[21]

이 이외에도 『전경』에서는 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조왕(竈王), 시두(時痘)손님, 망량(魍魎), 칠성(七星), 삼신(三神), 천신(天神), 천존(天尊), 우사(雨師), 상계신(上計神), 중계신(中計神), 하계신(下計神), 선녀(仙女), 태을(太乙), 장상신(將相神), 진인(眞人) 등이 나온다.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왕은 부엌을 관할하는 신으로 가정신앙의 하나이다. 또한 부엌은 불을 상징하므로 화신(火神)숭배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왕신앙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부뚜막에 청수(淸水)를 떠놓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였고, 조왕의 신격을 여성으로 간주하여 <조왕각시>, <조왕할망>이라고도 하였다. 영동지방에서는 <화신> 또는 <부뚜막신>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국적인 모성애를 보여주는 소박한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두(時痘)손님이라는 말에서 시두(時痘)는 천연두를 말하는 것으로 두신(痘神)을 제사한 기록은 『조선무속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연두로 인해 죽은 아이신을 별상애기, 별상님이라고 부르는데, 별상은 별성, 별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신(痘神)에서 음을 취한 결과라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민간에서는 천연두를 '손님' 또는 '손님마마'라고 부르는데, 이는 두신의 노여움을 풀고 안녕을 기원하자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2]

칠성(七星)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자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천추(天樞)·선(璇)·기(璣)·권(權)·개양(開陽)·요광(搖光)이라고도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탐랑(貪狼)·거문(巨門)·녹존(祿存)·

21) 김탁, 앞의 책, 84쪽
2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3권』, 「민간신앙·종교」, 서울 1982, 431쪽

문곡(文曲)·염정(廉貞)·무곡(武曲)·파군(破軍)이라고도 한다. 칠성은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을 통솔하는 주재신이며, 천재지변을 관장하고, 난리와 질병을 다스리는 소재신(消災神)이며, 사람의 수명과 자식을 점지하는 생산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칠성을 음양과 오행의 통솔자로 보며, 각기 맡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믿는 기록도 있다.[23]

삼신(三神)은 조화(造化)의 세 신(神,) 즉 천어중주신(天御中主神), 고황산령신(高皇産靈神), 신황산령신(神皇産靈神)을 가리킨다.[24] 조화의 신은 곧 출생, 생명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태(胎)를 보호하는 신을 삼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말에 태를 '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로 삼는다고 한다. 따라서 삼신의 三은 숫자로 보아서는 안되며, 곧 태신(胎神)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5] 다른 기록에서는 삼신은 부모나 조모(祖母)를 가리키며, 여기에 제사를 지내고 자손을 위해 기도하면, 복(福)과 수(壽)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한다.[26]

천신(天神)은 하늘에 존재하는 신으로 호천상제(昊天上帝)가 주신이며, 이외에 일월성신(日月星辰)·사중(司中)·풍사(風師)·우사(雨師) 등이 있다고 한다.[27] 이러한 천신(天神)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용어이며, 신문왕 때 김대성이 석불(石佛)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도 천신이 내려와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있다.[28] 천존(天尊)은 신선의 존칭이며, 불(佛)의 별칭이기도 하다. 또 삼대(三代)의 천존이 있는데, 과거에는 원시천존(元始天尊), 현재에는 태상옥황천존(太上玉皇天尊), 미래에는 금궐옥신천존(金闕玉晨天尊)이라고 한다. 또한 『옥추보경』에는 옥청원시천존(玉淸元始天尊), 상청영보천존(上淸靈寶天尊), 태청도덕천존(太淸道德天尊), 삼청삼경천존(三淸三境天尊),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원시천존은 천지개벽 때 비밀한 도를 여러 신선들에게 준다고 하며, 이름은 낙정신(樂靜信)이고, 겁액을 구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별칭도 전한다.[29]

---

23) 김탁, 앞의 책, 76-78쪽
24) 『한국민속대관』 3권, 421쪽
25) 이능화, 「巫行神事名目 —三神神祀—」, 『조선무속고』, 계명구락부, 1927, 46쪽
26) 村山智順, 앞의 책, 183쪽
27) 『대한화사전』 3권, 491쪽
28)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삼국유사』, 1973, 432쪽
29) 『대한화사전』 1권, 982쪽

우사(雨師)는 비의 신이다.[30] 단군신화에도 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풍운우뢰(風雲雨雷)를 맡은 신을 제사지냈던 제단이 서울 남쪽에 있어,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제주도에서는 풍운우뢰신(風雲雨雷神)에게 매년 제사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31] 이밖에 우사는 상양(商羊)이라는 신조(神鳥)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다리는 임의로 크게 하거나 작게할 수 있으며, 호수의 물이라도 다 빨아들여 마셔버릴 수 있다는 기록도 전한다.[32] 상계신(上計神)·중계신(中計神)·하계신(下計神)은 해석할 수 있는 문헌상의 내용이 없다. 다만 사전적으로는 뛰어난 계략을 가진 신, 보통의 계략을 가진 신, 그리고 낮은 계략을 지닌 신을 의미한다. 태을(太乙)은 북신(北辰)의 신명(神名)으로 천제(天帝) 또는 태일(太一)이라고도 한다. 『사기(史記)』의 기록에는 천제(天帝) 또는 천황상제(天皇上帝)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인(眞人)은 오묘한 도의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 선인(仙人)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남자는 진인(眞人)이라 하며 여자는 원군(元君)이라고 부른다.[33]

3. 신장

『전경』에 나타난 신장들은 대략적으로 오방신장(五方神將), 이십팔장(二十八將), 이십사장(二十四將), 육정신장(六丁神將), 사십팔장(四十八將) 등으로 나타난다. 오방신장(五方神將)이란 오방은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오방신을 태호(太昊), 염제(炎帝), 소호(少昊), 전욱(顚頊), 황제(皇帝)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은 각기 복희(伏羲), 신농(神農), 금천(金天), 고양(高陽), 헌원(軒轅)의 중국 고대 제왕으로 왕위에 있을 때 각기 오방(五方)의 정사(政事)를 맡았으므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바로 오방신을 오방신장 또는 오방장군이라 하여 무신(武神)으로 섬기기도 한다. 또 오방의 신을 청룡(靑龍), 주작(朱雀), 백호(白虎), 현무(玄武), 황룡(黃龍)이라고도 한다. 이때 청색, 백색, 흑색, 적색은

30) 『後漢書』, 「祭祀志」 下
31) 村山智順, 앞의 책, 같은 곳
32) 楊逢時, 앞의 책, 336쪽
33) 『대한화사전』 8권, 201쪽

동서남북을 의미하며, 황색은 중앙을 의미한다. 오방을 지킨다는 장군도 동의 청제(青帝), 남의 적제(赤帝), 서의 백제(白帝), 북의 흑제(黑帝), 중앙의 황제(黃帝)라고 일컫는다.[34] 육정신장(六丁神將)은 도교의 신명(神名)으로서 정축(丁丑), 정묘(丁卯),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를 지칭하고 있는데 무속에서는 갑자(甲子), 갑인(甲寅), 갑진(甲辰), 갑오(甲午), 갑신(甲申), 갑술(甲戌)의 육갑과 함께 육정육갑신이라 하여 12방위를 지키는 수호신 혹은 시간을 맡은 시신(時神)으로 섬기고 있다.[35]

이십사장(二十四將)은 당나라 때 능연각(凌煙閣, 지금의 협서성 장안현의 성안에 있던 전각)에다 당 태종이 정관 17년(서기 643년)에 나라에 공로가 큰 신하 스물 네명의 초상을 그려서 걸어 놓았었던 일에서 유래하였으며, 24절후를 담당하고 있다.[36] 이십팔장(二十八將)이란 후한(後漢)의 명제 때(서기 60년경), 광무제(서기 25-56년)의 공신으로 남궁운대에 그려진 이십팔인의 무장을 가리키며, 28수(宿)를 담당하고 있다.[37]

사십팔장(四十八將)은 『옥추보경(玉樞寶經)』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38]: 만법교주(萬法敎主), 동화교주(東華敎主), 대법천사(大法天師),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 홍제구천사(弘濟丘天師), 허정장천사(許靜張天師), 정양허진군(旌陽許眞君), 해경백진인(海瓊白眞人), 낙양살진인(洛陽薩眞人), 주뢰등천군(主雷鄧天君), 판부신천군(判府辛天君), 비첩장천군(飛捷張天君), 월패주천군(月孛朱天君), 동현교주신조사(洞玄敎主辛祖師), 청미교주조원군(淸微敎主祖元君), 청미교주위원군(淸微敎主魏元君), 동현전교마원군(洞玄傳敎馬元君), 혼원교주로원군(混元敎主路眞君), 혼원교주갈진군(混元敎主葛眞君), 신소전교종리진선(神霄傳敎鍾離眞仙), 신소전교여진선(神霄傳敎呂眞仙), 화덕사천군(火德謝天君), 옥부류천군(玉府劉天君), 녕태천군(寧太天君), 임대천군(任大天君), 뇌문구원수(雷門苟元帥), 뇌문필원수(雷門畢元帥), 영관마원수(靈官馬元帥),

34) 김탁, 앞의 책, 78-9쪽
『전경』, 행록 2장 10절, 4장 39절 참조
35) 『대한화사전』 2권, 70쪽
『전경』, 교운 2장 34절 참조
36) 『전경』, 예시 38 · 66절 참조
37) 『전경』, 행록 2장 20절, 예시 38절 참조
38) 曺誠佑 編著, 「四十八將請」, 『玉樞寶經』, 圖書出版 東洋書籍, 1982, 35-38쪽

도독조원수(都督趙元帥), 호구왕원수(虎丘王元帥), 호구고원수(虎丘高元帥),
혼원방원수(混元龐元帥), 인성강원수(仁聖康元帥), 태세은원수(太歲殷元帥),
고교당원수(考校党元帥), 풍도맹원수(酆都孟元帥), 익령온원수(翊靈溫元帥),
규찰왕부수(糾察王副帥), 선봉이원수(先鋒李元帥), 맹렬철원수(猛烈鐵元帥),
풍륜주원수(風輪周元帥), 지저양원수(地祗楊元帥), 랑령관원수(朗靈關元帥),
충익장원수(忠翊張元帥), 동신류원수(洞神劉元帥), 활락왕원수(豁落王元帥),
신뢰석원수(神雷石元帥), 감생고원수(監生高元帥)

4. 귀신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경우 보통 귀신은 선귀(善鬼)와 악귀(惡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귀신은 일반적으로 형체가 없기는 하나 인위적 행위, 또는 초인적 행위도 할 수 있다.[39] 이에 대해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40] 귀신은 사람과 같이 지각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 또 귀신은 기(氣)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나무나 돌도 능히 꿰뚫을 수 있다. 문이 있건 없건 출입이 자유로우며 물정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능히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귀신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을 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귀신은 인간의 사적인 감정이나 집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귀신들은 우주에 가득하고 분주히 인간들과 접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간신앙에서는 인간과 접촉하는 귀신은 선귀보다는 악귀가 더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귀신이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악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신명을 선귀(善鬼)로서

39) 신태웅, 『한국귀신연구』, 도서출판 로고스, 1989, 42쪽 참조

40) 『성호사설(星湖僿說)』은 李朝 英祖 때의 실학자 星湖 李瀷의 저서(신태웅, 앞의 책, 26쪽 재인용)
"鬼者 其有知覺 與人同 故人之所爲 鬼亦無不爲 鬼者氣也 氣無所不入 故能透木徹石門弄出幻如此也 鬼之情狀 本多眩人爲能 故往往出於意想之外 而人亦爲所欺耳"

양(陽), 귀신을 악귀(惡鬼)로서 음(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41]

그러나 대순진리에 나타난 귀신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이를테면 『전경』에서 "마음이란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가고 하는 것은 신(神)이다"[42], 또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43]라고 하였다. 이 경우 귀신은 선귀(善鬼)로서 신명(神明)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순진리에서 귀신이 선귀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전경』을 보면, 이화춘을 귀신으로 위안하였다거나[44]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다[45]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 귀신은 악귀(惡鬼)로서 원귀(冤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대순진리에 나타난 귀신은 민간신앙과는 달리 선귀와 악귀를 모두 포함한 일반적인 신(神)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귀신은 일반적인 신 개념에 대한 구체적 분석개념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46] 다시 말해서 귀신과는 또 다른 의미로서 귀와 신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살펴보면, 공자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또 죽으면 반드시 흙이 되는데, 이것을 귀(鬼)라 한다. 골육은 땅에 들어가 썩고 으슥한 곳에서 야토(野土)가 되고, 그 기(氣)는 발양해서 위로 올라가 빛나는 것, 냄새나는 것, 싸늘한 것 등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물(物)을 이루고 있던 정기(精氣)이고 이것을 신(神)의 나타남이라고 했다.[47] 또 그는 기(氣)

---

41) 신태웅, 앞의 책, 42-43쪽 참조

42)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43) 『전경』, 교운 1장 19절

44) 『전경』, 교운 1장 31절 참조
"문 공신(文公信)과 박 장근, 이 화춘 세 사람은 고부화액을 당하고 상제를 원망하며 불경한 패설을 일삼았도다. 이 화춘은 삼월에 의병에게 포살되었고 박 장근은 의병으로부터 매를 맞고 뼈를 부러뜨렸도다. 상제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공신에게 마음을 바로잡을 것과 천노가 있음을 알려주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글을 써서 불사르셔서 이 화춘을 귀신으로서 위안하셨도다."

45) 『전경』, 교법 1장 46절 참조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 하시고(...)"

46) 李京源, 「大巡思想의 神觀」, 국제중국철학회 제 5차 학술발표논문, 3쪽

47) 『예기(禮記)』, 제의편(祭儀篇)
"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骨肉斃于下 陰爲野土 其氣發揚于上 爲昭明焄고悽愴 此百物之精也 神之著也"

란 신(神)이 성(盛)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백(魄)이라는 것은 귀(鬼)가 성(盛)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귀(鬼)와 신(神)을 합해서 말할 때 비로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48]

또 주자(朱子)는 귀와 신을 음양의 이치에 맞춰 설명하였는데, 그는 귀(鬼)는 음(陰)의 영(靈)이요 신(神)은 양(陽)의 영(靈)이다. 그러나 이르러 펴는 것은 신(神)이 되고, 돌이켜 돌아가는 것은 귀(鬼)가 되는 것이니 그 실제는 하나일 따름이라 하였다.[49] 이와 같은 주장으로서, 이익은 중국학자 장횡거(張橫渠) 등의 음양설에 영향을 받아 "귀야자 음지령 신야자 양지령(鬼也者 陰之靈 神也者 陽之靈)"이라 하였다. 즉, 귀(鬼)는 음령(陰靈)이고 신(神)은 양령(陽靈)이라 하여 귀와 신이 동일본체(同一本體)로 한실체의 양면임을 말하였다. 또한 귀신의 생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모든 천지에 충만한 것에 기(氣)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응집하여 물체가 되는 것은 귀(鬼)의 정영(精英)이다. 이것이 소위 역(易)에서 정(精)이 물(物)이 된다는 것이다. 전해오는 말에 처음되는 것은 백(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백은 음(陰)이다.[50]

음(陰)은 형상을 이루고 형질(形質)이 이미 생기면 백(魄)도 역시 그중에 있는 것이다. 양(陽)은 음(陰)에서 생기며, 양기(陽氣)의 정영(精英)을 혼(魂)이라 한다. 그래서 백(魄)이 있으면 머지 않아 혼(魂)이 있게 된다. 이 혼백이 합하여 이목(耳目)의 청명(聽明), 구비(口鼻)의 호흡과 인생의 허다한 정신력을 이룬다. 늙어서 죽는 것은 양기가 무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易)에서 소위 유혼위변(游魂爲變)으로써 생(生)이 사(死)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무산된 기가 천지간에 편만한 것은 마치 실내의 화로를 끄더라도 온열의 기가 실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단단했던 기는 천천히 그렇지 못한 기는 빨리 멸하는 차이밖에 없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고 영구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산될 때 올라가는 혼기는 양(陽)으로 신(神)이 되

48) 앞의 책, 같은 곳
"神之盛也 魄也者 鬼之盛也 合鬼與神 敎之至也"

49) 『중용(中庸)』, 제 16장 朱子注
"愚謂 以二氣言 則鬼者, 陰之靈也, 神者, 陽之靈也. 以一氣言 則至而 伸者爲神, 反而歸者爲鬼, 其實, 一物而已"

50) 신태웅, 앞의 책, 27쪽 참조

고 내려가는 혼기(魂氣)는 음(陰)으로 귀(鬼)가 되는 것이다. 이 신(神)은 보통 기(氣)보다 왕성하는 것이고, 귀(鬼)가 백(魄)보다 왕성하는 것은 마치 물질이 기구보다 앞서는 것같다고 했다. 더욱이 이 귀신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고 생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귀가 되고 신이 된다. 그 이유는 생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죽을 때에는 그 음양의 정은 귀가 되고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은 전부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51]

대순진리에서도 귀와 신의 분석적 개념은 위에서 설명된 공자나 주자, 이익 등의 견해와 유사하다. 『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52]라고 귀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사람에게 있었던 혼백이 사후 사대(四代)라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변화의 결과(1차적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귀신은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혼백과 직접적인 관련속에서 나타나며, 그 중 신(神)은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변화(2차적 변화)가 일어나 선 또는 영이 된다. 이것이 대순진리의 귀신에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Ⅲ. 신과 인간의 관계

신앙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인간이 배제된 오로지 신만이 존재하는 종교는 있을 수도 없으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력은 이미 상실되어 인간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 버린다. 신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종교에서는 신이나 인간을 별개로 취급하거나 또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침으로써, 신과 인간의 분리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기성종교의

51) 앞의 책, 27-28쪽 참조
52) 『전경』, 교법 1장 50절.

신과 인간의 단절과는 달리, 대순진리에서 신은 최고신(最高神)인 상제의 사역하(使役下)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간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기[53] 때문에, 신은 인간존재의 또 다른 존재방식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신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가는 것은 신이다."[54]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고 마음을 드나드는 것은 곧 귀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신과 교류가 가능한 존재로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순진리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공재적(共在的)·음양적(陰陽的)·대대적(對待的)인 관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1. 공재적 관계

신과 인간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재적(共在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이 인간이 먹는 대로 흠향(歆饗)한다[55]는 것은, 신이 인간과 존재방식은 다르지만 삶의 양식(樣式)은 유사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육체를 가진 가시적(可視的)인 존재인데 비하여 신은 육체를 갖지 않은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존재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또 상복(喪服)은 죽은 귀신이 지은 것이라는[56] 말은 인간의 손을 빌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상복을 만든 것으로 이것은 인간과 신이 공존(共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신이 인간의 마음을 드나든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53) 『전경』, 교법 1장 50절 참조
54) 『전경』, 행록 3장 44절
55) 『전경』, 교법 1장 49절 참조
56) 『전경』, 교법 1장 48절 참조

있는데, 특정한 신이 항상 인간과 함께 상존(常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器局)[57]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58], 신은 인간의 기국(器局)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공존(共存)하다가 옮겨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경』에서 전쟁사를 읽지마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 승리한 자의 신은 춤을 추지만 패한 자의 신은 이를 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이 응(應)하는 까닭이니[59], 신은 인간과 아주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음양적 관계

신과 인간은 음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작용과 속성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밝히므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음양은 상호 상승과 하강, 생성과 감쇄의 관계속에서 모든 삼라만상의 변화의 출발과 마침이 되며 인간 생의 근원과 터전이 된다. 인간은 양의 의미를 갖고 신과 음양관계로 존재하여 음의 세계인 신명계를 느껴 통해야 진정한 큰 어짐과 큰 의리를 가질 수 있다.[60] 모든 일은 시발하는 곳을 관찰해야 하며 음과 양에 있어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밝아진다(萬事起於陰 以布陽).[61]

음양은 우주만물 중 서로 상대적인 위치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 암컷은 음이고 수컷은 양이다.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숨은 것은 음이고 나타난 것은 양이다.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6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57) 기국(器局)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도량(度量)과 재간(才幹)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순진리에서 의미하는 기국은 수양과 수도의 정도에 따라 신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8) 『전경』, 교법 2장 17절
59) 『전경』, 교법 2장 23절 참조
60) 고남식,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의 原理」, 『大巡思想論叢』 제 2집, 大巡思想學術院, 포천 1997, 379쪽; 『전경』, 교운 2장 42절, 제생 43절 참조
61) 『전경』, 제생 43절 참조
62)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참조

그런데 이 음양이 합해진 후에 변화의 도(道)가 있다.[63] 음양이 합해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신과 인간이 합해진다는 의미로 추후에 언급될 신인조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서로 음양관계에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짐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과 인간도 음양으로써 조화(造化)를 이룬다. 신과 인간이 화합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신과 인간이 합쳐져 모든 공을 이룬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인이 서로 통한 후에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사(神事)가 성공하고 인사(人事)가 성공한다. 인사(人事)가 성공하고 신사(神事)가 성공한다.[64]

이상을 종합하면, 신과 인간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화합을 할 때 만사가 이루어지며, 음양이 합쳐지는 것처럼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해야 신사(神事)와 인사(人事)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조화를 음양의 원리에 맞춰 강조한 것으로 신인조화가 되면 궁극적 목표인 후천선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대적 관계

'대대(對待)'라는 용어는 본래 음과 양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말로써, '대립(對立)하면서 서로 끌어당긴다',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 '상호 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65] 신과 인간의 관계도 음과 양의 관계로서 대대적(對待的)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乾定坤順乾陽坤陰 日行月行日陽月陰 有神有人神陰人陽 有雄有雌雌陰雄陽 有內有外內陰外陽 有右有左左陰右陽 有隱有顯隱陰顯陽 有前有後前陽後陰(...)

63) 『전경』, 제생 43절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64) 『전경』, 교운 2장 42절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皆是陰陽中有...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俟人人俟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

65) 金谷治, 『易の話』, 강담사, 동경 '72, 150-151쪽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대 박사학위논문, 1989, 7쪽 재인용) 참조

다. 여기서는 대대(對待)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수적(授受的) 관계 · 수복적(受福的) 관계 · 수혜적(受惠的) 관계 · 상호 의존적 관계로 나누어 보았다.

신과 인간은 상호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수수적(授受的) 관계에 있다. 인간계에서 벌어진 일이 천계에, 천계의 일이 인간계에 영향을 미친다.

>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66]

인간들이 일으키는 분쟁이 그대로 천상에 있는 선령신들의 싸움으로 번지고,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인간의 의지로 싸움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령신들의 싸움이 끝나야 비로소 해결된다. 즉, 인간 행위가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신의 작용이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순진리의 주요한 관점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어느날 종도인 장흥해의 부친 장효순이 죽어가는 손자를 살려달라고 상제를 찾았을 때, 상제께서는 "냉수나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손자가 죽자 장효순은 분통이 나서 상제를 원망하였다. 상제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능은 갖고 있었으나 아이의 명(命)이 다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역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장효순은 본래 성질이 사나워서 사람들로부터 천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상제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아무리 위독한 병이라도 말 한 마디로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장효순은 자기 손자를 고의로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몽둥이로 상제를 난타하여 유혈을 낭자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67] 이런 일을 두고 종도들은 상제의 권능으로 충분히 장효순의 난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상제께 묻자,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지

66) 『전경』, 교법 1장 54절
67) 『전경』, 행록 3장 1, 2절 참조

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68]

교중이나 가중의 분쟁이 신정(神政)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신정이 문란해져 그대로 두면 온 세상에 큰 재앙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상제께서는 장효순의 만행을 감수하시어 이 세상의 겁액을 없앤 것이다.

한편 신과 인간은 수복적(受福的)인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생명이라는 큰 축복을 받는 존재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69]

선령신이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공을 들여 하늘로부터 자손을 얻어 낸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없으면 또 거기에 신의 공이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수복적(受福的)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인간은 신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적(受惠的) 관계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나니라."[70]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71]

신은 인간 자신이 도를 닦은 정도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원활

68) 『전경』, 행록 3장 8절
69) 『전경』, 교법 2장 36절
70) 『전경』, 교법 2장 17절
71) 『전경』, 교운 1장 63절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호위를 해준다. 즉, 인간이 신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적(受惠的)인 관계를 말한다.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은 남이 하는 것만 안일한 생각으로 부럽게 바라만 보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자기자신이 직접 공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자세와 실천적인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 두번째 예문은 인간이 공부를 하면 신명은 이에 응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호위해 준다는 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입증해 주고 있다. 신은 한 사람에게만 상주(常住)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국에 따라 옮겨 가는 전이적(轉移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의 자격과 공부만 부러워하고 자기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간다. 또 신명은 인간이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和氣)를 잃게 하면, 신명들은 이를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를 이끌고 떠나가게 된다[72]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예문에서 공부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대순진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를, 두번째 예문에서 종도(從徒) 신원일이 했던 공부는 구체적으로 주문(呪文) 공부를 말한다. 수혜적인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73]

상제께서는 우주만물의 주재자(主宰者)로서 천계(天界)와 지계(地界)의 상극적 원인이나 요소를 개조(改造)하고 신명을 통해 인간도 개조할 능력을 지니셨다.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셨는데, 이러한 인간개조는 쓸모없는 말

---

72) 『전경』, 교법 1장 42절 참조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뇨.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

73) 『전경』, 교법 3장 1절

뚝이라도 기운만 붙이면 쓸 수 있는 이치(理致)에서 비롯된다.[74] 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제의 명(命)에 의해 매개자(媒介者)로서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과 인간은 상호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의존적(依存的)인 관계하에 놓여 있다.

>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다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은 세운다."[75]

신과 인간은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어느 쪽도 존재할 수 없으며, 우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자는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관계,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하는 관계하에 있는 것이다.

Ⅳ. 신인조화의 특성

1. 신관

대순진리가 상제를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일신론, 신명이나 신장류는 다신론, 신은 다신론이며 범신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고신인 상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유일신론보다는 단일신론(單一神論)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일신론이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며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기독교)만을 신앙하고 그 외의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데

---

74) 『전경』, 교법 3장 4절 참조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75)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神明俟人人俟神明"

비해, 단일신론은 모든 신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최고신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또 상제의 주재하(主宰下)에 있는 신명, 신, 신장, 귀신이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신론이나 범신론이 여러 신들을 설정하고 인간이 이 신들을 모두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대순진리의 신명이나 신장, 신, 귀신들은 모두 다 신앙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순진리에 대두되는 신(광의적 의미)은 최고신인 상제와 상제의 주재하(主宰下)에 있는 신(협의적 의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또 대순진리의 신관(광의적 의미)도 크게 최고신적인 관점에서의 상제관과 상제의 주재하에 있는 신적인 관점에서의 신관(협의적 의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제관은 신인조화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적 의미에서의 신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명, 신, 신장, 그리고 귀신의 개념은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경우처럼 초월적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떠한 특정 대상을 신격화하고 거기에 초월적인 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강한 개성이 필요한데, 대순진리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나 예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신관은 기존의 종교에 나타난 신관의 특징을 모두 혼용하는 태도를 지니면서도 그 체계적 질서를 다양하게 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일신적인 성격과 다신론적인 성격, 그리고 범신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복합적인 신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특성을 통한 구별을 하고 있는데, 문헌상으로 나타난 신명은 좀 더 포괄적이며, 긍정적인 기능과 상위적인 차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신은 다양성과 함께 하위적인 위치와 더불어 부정적인 내용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간의 명확한 구별은 쉽지 않고 혼용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76] 이와 같이 신명과 신은 애매하지만 구별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

76) 김탁, 앞의 책, 89-94쪽

그러면 대순진리에 나타난 신관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신명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명은 인간의 생사(生死)나 언사(言事)에 관계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심판자로 나타난다.[77] 둘째, 신명은 자유로운 이동과 왕래가 가능하며[78], 스스로의 자율권과 능동성을 지니고 있지만[79] 상제님의 명(命)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나타난다.[80] 셋째, 신명은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

77)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전경』, 행록 1장 29절 참조)

"웅종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에 구릿골로 행차하셨도다. 가시는 도중에 공우에게 「사나이가 잘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니 제 연분이 아니라. 신명들이 없애려는 것을 구하여 주었노라. 이제 병은 나았으나 이 뒤로 잉태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과연 그후부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도다. (『전경』, 행록 4장 20절 참조)

[이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은 『전경』, 행록 5장 4절, 교법 1장 7, 29절, 3장 5, 24절, 예시 67절 등이 있다.]

78) "이것은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옴이니라" (『전경』, 행록 3장 61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행록 4장 11절, 예시 25, 29, 69절 등 참조]

79)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느니라."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행록 1장 29절, 4장 11절, 공사 2장 4절 등 참조]

80)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보각(珠樓寶閣) 십만칸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전경』, 교법 3장 44절)

자[81] 천지공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 존재이다.[82] 네째, 신명은 인간에게 복록과 인간의 대소사에 관여하며, 인간의 개조(改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며,[83] 인간처럼 인격성을 지니는 존재이기도 하다.[8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은 인간에 비해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인격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그 본래의 직능적 특성도 갖추고 있다. 또 상제의 명(命)에 의해 천지의 일과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존재이며, 인간과 더불어 구제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도 인간과 같은 영역에서 해석되는 존재이며, 해원의 대상이자 해원과 구제를 통해 완성을 추구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인조화라는 거대한 명제를 신과 인간에게 적용시켜 양자를 보다 더 초월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창출해 내는 대순진리의 특징적인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신관은 인간과의 관련성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인간관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인조화가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교운 2장 28절, 교법 3장 4절, 권지 1장 9절, 예시 25, 29절 등 참조]

81)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함이니라" (『전경』, 공사 1장 1 참조)
"이번 공사는 신명해원(神明解寃)을 위주한 것이라" (『전경』, 교운 2장 57절 참조)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 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전경』, 예시 10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공사 1장 9, 29절 참조]

82) 『전경』, 행록 4장 8절, 공사 1장 10절, 2장 19절, 교운 1장 8절, 2장 28절, 교법 3장 18절, 예시 25, 29, 69절 참조

83) 『전경』, 행록 4장 11, 20, 40절, 공사 1장 24절, 3장 5절, 교운 1장 9절, 교법 1장 42, 55절, 2장 17절, 3장 4, 24절, 예시 8절 참조

84)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 (『전경』, 공사 1장 29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행록 5장 4절, 공사 2장 4, 19절, 교운 1장 9절, 교법 1장 17, 42절 참조]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전술한 신관의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대순진리에서 인간과 신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난다. 그 결과 신관에 대한 이해는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없었다. 이처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종교와 사상에 나타난 인간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순진리의 인간관을 통해 현실과 미래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닌 조상선령신들의 노력과 천지로부터 얻어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이외의 주변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주위에 대한 존중과 보은(報恩)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간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전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선령신들은 육십년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을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85]

이와 같은 전경의 내용에 기초할 때 인간에 관한 대순진리적 이해는 일차적으로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다"라는 종래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즉, 인간과 관련한 인식을 단순히 부모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대상에게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조상선령신들의 공력의 결과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인간 자신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가치인식과 더불어 동양전통의 효(孝)에 대한 관념이 보다 폭넓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의미가 더욱 더 확대되어 인간은 천지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전경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

85) 『전경』, 교법 2장 36절

다.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86)

"선천에는 모사재인(謀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이니라."87)

이러한 사실은 상제께서 인간을 천·지·인 삼계라는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했으며, 대순진리에서 인간은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삼계의 주체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에 나타난 인간관의 특징은 인존사상(人尊思想)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출현과 함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존사상이란 인간을 단순히 존귀한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며, 인간이 그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상제님의 새로운 인간철학은 인간에 대한 인식자체를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즉,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간은 인간 외에 타존재나 세계를 지극히 경외(敬畏)와 신비의 대상으로만 파악해 왔었다. 이러한 사실은 '천존(天尊)' 과 '지존(地尊)'이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이, 인간은 하늘과 땅을 지극히 존엄하고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천·지·인 전체속에서 파악되어져야 하는 유기적 관계체(關係體)라면, 인간도 마땅히 '인존(人尊)'이 되어야만 대등한 논리일 것이다. 따라서 인존사상은 인간을 새로운 우주질서의 변화와 전개를 통해 인간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존사상(人尊思想)은 인간이 전체구조(즉, 三界)의 주체자로서 우주만유를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질적인 변화를 말해 주는 대순진리 인간관의 커다란 특징일 것이다.

---

86) 『전경』, 교법 2장 5절
87) 『전경』, 교법 3장 35절

이를테면 『전경』에 사람이 없다면 천지도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사람을 낳고 쓰며[88], 하늘과 땅이 있으되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질이요, 해와 달이 있으되 그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89]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천지인 삼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실체이자 요소이며, 삼계(三界)는 결코 서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는 관계체로서,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존재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인존(人尊)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은 신과 합치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내용을 따른다면 성선설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완전하거나 착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본질 회복을 통한 신과의 조화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뒤에 신인조화의 실천방법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한편 대순진리회의 인간의 기본적 덕목은 사강령과 삼요체를 통해 그것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강령[90]은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이며, 삼요체[91]는 수도의 중요한 요체

88) 『전경』, 교법 3장 47절
"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89) 『전경』, 예시 21절
"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

90) 사강령(四綱領)은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를 일컫는다. 안심(安心)이란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은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함을 말한다. 안신(安身)이란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범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천(敬天)이란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수도(修道)란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91) 삼요체(三要體)란 성(誠)·경(敬)·신(信)을 일컫는다. 성(誠)이란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하는 것은 오직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

를 말하는 것으로 성, 경, 신을 들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은 이상실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 외에도 본성의 회복과 충효열의 강조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대순진리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無自欺)를 통한 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을 통한 인간개조(人間改造)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신선실현을 이룩한 도통군자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신인조화의 실천방법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은 진리의 표준(또는 기준)이며 인간은 그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가능적인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신과 인간은 본래 그 근본이 하나이며 신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 존재방식은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다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신과 인간은 음양적 관계로서, 신인조화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우주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간세계의 질서는 곧 신의 세계의 질서와 합치되어 운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92]

이것은 신인조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조화(調化)'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인 '조화(調和)'나 '조화(造化)'와는 그 용례가 다르다는 것이다. 조화(調和)는 '고를 조(調)'와 '온화할 화(化)'의 합성어로서 '고르게 하여 알맞게 맞추다',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리게 한다'는 의

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 경(敬)이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함이다. 신(信)이란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와 정과 편벽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과하되 강하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92) 鄭大珍, 「大巡思想 硏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 1집, 大巡思想學術院, 포천 1996, 5쪽 참조

미이다. 또 '조화(造化)'는 '지을 조(造)'와 '될 화(化)'의 합성어인데, 이는 '천지 자연의 이치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기른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신통하게 된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난다.[93] 대순진리에서 조화(調化)라는 말은 기존의 용어인 조화(調和)와 조화(造化)를 모두 포괄한 새로운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과 인간은 조화가 가능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신인조화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전경』의 내용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제께서는 신명으로 하여금 인간의 가슴속이나 뱃속 그리고 마음속에 드나들게 하여,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도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시겠다고 하셨다.[94] 이것은 신인조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신명을 인간에게 출입케하여 인간을 개조함으로써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신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속에서 신과 인간의 성숙이 전제될 때,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체이며, 조화(調化)의 가능성을 지닌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인조화의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천방법은 타력적 방법과 자력적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95] 타력적(他力的) 방법이란 인간이 신명을 통해 신인조화를 위한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력적(自力的) 방법은 인간이 자발적인 심신수도를

---

93)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硏究」, 『大巡思想論叢』 제 1집, 342-343 참조

94) 이와 관련된 구절은 전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전경』, 예시 7절)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전경』, 교법 3장 1절)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전경』, 교법 3장 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전경』, 행록 3장 44절)

95) 金正泰, 같은 글, 368쪽 참조

통해 신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자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간이 신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주문(呪文)[96]이나 기국(器局)[97]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기국은 신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난다. 기국의 정도에 따라 신명과의 조화능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국은 수도나 수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식(標識)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국을 확대하는 일은 신명과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과 매개(媒介)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며 초점이 맞추어 지는 부분은 기국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국을 늘이는 일은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력적인 방법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무자기(無自欺)를 예로 들 수 있다. 일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천지의 귀와 신이 살피고 있으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여도 자기자신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98] 또 마음의 발로에 사심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해야 하며[99], 참된 성품을 살펴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

---

96) 『전경』, 교법 2장 23절 참조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

97) 기국(器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전경』, 교법 1장 42절 참조)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전경』, 교법 2장 17절 참조)
"상제께서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플터이니 각자의 기국(器局)에 맞추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전경』, 교법 2장 54절 참조)

98) 『대순지침』 28쪽 참조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와 신이 살피시니라(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 하셨으니, 도인들은 명심하여 암실기심(暗室欺心)하지 말아야 한다."

99) 『대순지침』, 75쪽 참조

아진다고 하였다.[100]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이 본성을 회복하고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일 때, 거짓이 없고 사심이 없는 상태인 무자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私心)이 있는데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이며, 사심은 물질적인 욕심에 의하여 발동되는 마음이다. 본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이지만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게 된다. 인간이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자기(無自欺)를 바탕으로 하여 정신개벽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개벽을 위한 실천수행 원리로서 수심연성(修心煉性)·세기연질(洗氣煉質)·면이수지(勉而修之)·성지우성(誠之又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01]

수심연성(修心煉性)에서 수심(修心, 마음을 닦음)이란 자신의 때묻고 흐트러지고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 상극(相克)의 묵은 기운을 빼내고 상생(相生)의 새 기운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며, 연성(煉性, 성품을 연마함)은 상생의 기운으로써 인간 본래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에 귀일(歸一)하고자 수련하는 것을 말한다. 세기연질(洗氣煉質)이란 선천의 상극지리(相克之理)에 지배되어 있는 묵은 기운을 빼내어 원황정기(元皇正氣)가 내 몸에 합해질 수 있도록 상생의 도로써 인간본래의 맑고 깨끗한 본성에 이르도록 자기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이수지(勉而修之)란 사강령 즉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를 체인체득(體認體得)하기 위하여 힘써 닦는 것을 의미한다. 성지우성(誠之又誠)이란 면이수지(勉而修之)하기 위해 정성에 또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성(至誠)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며[102], 신과 인간과의 조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성의 회복을 통한 무자기의 실현은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100) 『대순지침』, 39쪽 참조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성품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펴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느니라."

101) 朴彭鍊, 「精神開闢의 實踐原理論」, 『大巡論集』, 대순진리회출판부, 1992, 119-131쪽 참조

102) 『전경』, 권지 2장 32절 참조
"너희들도 지성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상에서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수행 방법으로서 훈회(訓誨)의 다섯가지 사항 중 첫번째인 무자기(無自欺) 즉, 자기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술했다. 이 외에도 실천방법으로서 언덕(言德)을 잘 가질 것[103]과 척(慽)을 짓지 말 것[104],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105]과 남을 잘 되게 할 것[106] 등을 들 수 있다.

4. 신인조화의 완성

신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그 결과로써 인간은 새로운 각이 열리고 신통과 영통을 얻어 만물과 자유자재로 교감할 수 있게 된다.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결과는 인간의 신선화(神仙化) 다시 말하면 지상신선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인조화의 결과인 신선(神仙)은 결코 반신반인(半神半人)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선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것과는 다른 별개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신도 아니고 인

---

103)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니라." (『전경』, 교법 1장 11절 참조)
"식불언(食不言)이라 하였으니 먹는 것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寢不言)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전경』, 교법 1장 60절 참조)
"언덕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 지니라 하셨도다." (『전경』, 교법 2장 50절 참조)

104)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전경』, 교법 2장 44절 참조)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전경』, 교법 3장 4절 참조)
"이제 말세(末世)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전경』, 예시 17절 참조)

105) "선령신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전경』, 공사 3장 9절 참조)

106)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명부가 되었느니라." (『전경』, 교법 1장 2절 참조)

간도 아닌 새로운 창조적 존재의 출현을 말한다.[107]

후천선경은 선천세계와는 달리 완성을 이루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도통진경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원리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라 할 수 있다. 후천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음양합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음양관계에 있는 신과 인간도 합덕(合德) 즉, 조화(調化)를 이룰 수 있다. 대순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과 우주의 완성에 있다고 볼 때, 그 완성을 위한 방법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108]

이렇게 신인조화의 완성은 선천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후천선경의 세계로 설명될 수 있다. 후천선경의 세계가 되면, 인간들은 늙거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장생할 수 있으며, 궤합을 열기만 하면 옷과 음식이 나오며, 전세계가 시기와 질투, 전쟁이 없이 화평해질 것이다.[109] 또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고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다.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다. 또 빈부의 차별이 없고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시방세계에 통달하게 된다. 세상에는 수(水)·화(火)·풍(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 될 것이다.[110]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후천의 세계는 인존과 섭리의 세계, 그리고 상생과 조화의 세계가 펼쳐짐으로써 인간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지상선경의 세계가 될 것이다.

---

107) 金正泰, 같은 글, 348쪽 참조
108) 앞의 책, 같은 글, 349쪽 참조
109) 『전경』, 예시 80절 참조
110) 『전경』, 예시 81절 참조

V. 결 론

신인조화는 어느 종교나 사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순진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존사상이 대두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을 초월하고 있다.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인존사상이란 인간을 단순히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천·지·인 삼계의 주체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은 인간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 인간은 이러한 사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천적인 수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신인조화는 불가능한 일이 되버릴 것이다.

신인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타력적인 방법과 자력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력적인 방법으로서 인간 스스로의 심신수행(心身修行), 기국(器局)을 확대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일, 또 훈회(訓誨)의 다섯가지 사항 특히 무자기(無自欺)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방법을 실천수행함으로써 신과의 접촉이 가능하며, 신인조화도 가능할 것이다.

신인조화란 신과 인간이 일체(一體)·일본(一本)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그 주체가 되는 마음을 인간이 선(善)의 의지에 의해 잘 다스려 나가자는데 핵심이 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이라도 그 시대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고 홀로 있어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엄격한 상생의 윤리 도덕관이 정립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모두가 다 잘되는 것이야 말로 신인조화의 이념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종교가 지니는 현실부정 혹은 도피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현실속에서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요도(要道)가 되며, 신과 인간이 별개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이상적인 종교사상이라 하겠다.[111] 결국 신인조화는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대순진리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것이다.

---

111) 鄭大珍, 같은 글, 6쪽 참조

【참고문헌】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大巡思想論叢』 제 1집, 大巡思想學術院, 포천 1996

『大巡思想論叢』 제 2집, 大巡思想學術院, 포천 1997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1 · 2 · 8 · 12권, 大修書店, 東京 昭和 59年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삼국유사』, 197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3권, 「민간신앙 · 종교」, 서울 1982

김탁, 증산교의 신관, 『증산교학』, 미래향문화, 1992

신태웅, 『한국귀신연구』, 도서출판 로고스, 1989

李京源, 「大巡思想의 神觀」, 국제중국철학회 제 5차 학술발표논문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구락부, 1927

曺誠佑 編著, 『玉樞寶經』, 圖書出版 東洋書籍, 1982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대 박사학위논문, 1989

金谷治, 『易の話』, 강담사, 동경 '72

村山智順, 『朝鮮の鬼神』, 조선총독부, 1929

楊逢時, 『中國正統 道教大辭典』, 逸群有限公司, 臺北 1985

『後漢書』, 「祭祀志」 下